

백화점 올 첫 세일 매출 '쑈~욱'

초반 3일 30% 이상 신장 소비심리 회복 기대

모피 등 고가 의류품목 작년보다 5배이상 쑈증



국내 백화점들이 새해들어 처음으로 지난 8일부터 '겨울 정기 세일'에 들어간 가운데 롯데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백화점업계는 지난 8일부터 24일 까지의 새해 첫 정기세일에서 초반 3일 동안 30%를 넘어서는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인 소비심리의 회복과 함께 고소득자들의 고가제품 소비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11일 지역 백화점 3사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롯데백화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등 백화점 업계의 정기세일 첫 3일인 지난 8~10일 매출이 지난해 정기세일 초반 3일 실적에 비해 최저 20%에서 최고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수입 의류나 모피, 명품 등 고가제품은 지난해에 비해 최고 5배 이상 매출이 늘어났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여성복이 18%, 남성복은 20%가 증가하는 등 지난해

판매가 부진했던 의류 부문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됐다. 여성복 가운데 캐리커 캐주얼이 74%, 엘레강스 58%, 영캐주얼 49%, 남성복은 신사복 36%, 캐리커 캐주얼이 34% 등의 신장률을 보였다. 또 아웃도어의 매출도 32% 늘어났으며,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30% 시즌 아웃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드 서널 캐주얼도 매출이 19% 늘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의류 부문을 중심으로 20% 이상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품별 매출 신장률은 잡화 43.7%, 여성 38.9%, 스포츠 36.6%, 남성 31.6%, 가전리빙패션 24.2%, 식품 22.3%, 명품 10.9% 등이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겨울세일 첫 3일 동안 전국 11개 점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전국 11개 점포의 매출 신장률이 37.9%인데 비해, 광주점은 58.4%가 뛰

었다. 겨울의류 수요가 집중적으로 늘었고, 특히 모피 매출은 600% 가까이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경기 회복 국면과 맞물려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데다 시즌 아웃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새해 정기세일 매출이 사상 최대의 신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연합뉴스 chadol@kwangju.co.kr

'옵니아2' 국내價 해외보다 30% 비싸다

'코비'는 2배... 소비자 역차별 불만

삼성전자의 대표 스마트폰인 '옵니아2'의 국내 출고 가격이 해외보다 최대 30%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이 신세대 소비자를 겨냥해 내놓은 '코비'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보다 두 배가량 비싼 돈을 지불해야만 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주요 휴대전화의 국내용 제품에 대해 해외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서 '역차별'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옵니아2'다. 지난해 10월

중순 국내 출시된 '옵니아2'의 출고가는 2기가바이트(GB)가 92만 4천원, 8GB가 96만8천원이다. 애플 '아이폰' 출시 이후 각각 4만원 가량 인하됐지만, 여전히 이동통신사의 약정과 비싼 요금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9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옵니아2'를 이보다 최대 30% 가까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통상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출고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약정 등 아무런 조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공기계'의 가격을 통해 출고가를

추정한다. 현재 유럽지역의 경우 '옵니아2'의 공기계는 500달러 중반에 구입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도 600달러 중반 내외에 가능하다.

1달러에 1천200원 내외의 환율을 적용하면 해외에서는 '옵니아2'를 국내보다 10~30%가량 저렴한 66만~78만원 정도에 이동사 약정이나 비싼 요금제 선택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코비'의 경우는 국내항과 해외항의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진다. '코비'의 국내 출고가격은 65만원 내외. 그러나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20만원대 중반의 가격에 아무런 약정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등 대부분 유럽 지역에서 30만원 이하의 가격이 책정돼 있다. /연합뉴스

1달러 = 1,119.80원

7거래일째 내림세 리먼사태 이전 복귀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째 내림세를 지속하며 1,119.80원으로 하락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인 지난 8일(1,130.50원)보다 10.70원 내린 1,119.80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이 증가 기준으로 1,110원대로 떨어진 것은 2008년 9월 17일(1,116.00원)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5.50원 내린 1,125.00원으로 출발해 곧바로 1,110원대로 진입했으나 이후 1,120선에서 수급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오후 들어 1,117.50원까지 저점을 낮췄으나 마감을 얼마 앞두고 외환당국의 중

가 관리성 매수세가 나오면서 1,119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외환 전문가들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역외세력 매도가 겹치면서 환율이 급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 달러화는 지난해 10월 미 도매재고가 예상을 깨고 증가했음에도 작년 12월 비농업부문 고용감소 규모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약세를 나타냈다.

연초부터 역외 세력들이 아시아 통화 강세에 베풀하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 약세는 이들의 달러 매도 심리를 더욱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 환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외환담당자는 "그동안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150원 선이 무너진 이후 딱히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없다"면서 "따라서 당분간 환율 하락세는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T 5,236억 지원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aT(농수산물유통공사)광주전남지사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산자 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5천236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저장, 가공, 수출, 외식사업자와 해당분야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자이며, 지원 규모는 농식품 수출자금 3천193억원, 수산물 수출자금 804억원이다.

또 저장용 수매자금은 300억원이며, 금리는 연 4% 이내다.

자세한 내용은 aT 홈페이지(www.at.or.kr) 자금지원 정보 메뉴를 참고하거나 aT 광주·전남지사 (062-940-7011,7013)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잠재-실질 GDP갭 29조원

지난해 금융위기 탓 올엔 24조원 차 예상



우 실질 GDP규모는 1천21조8천억원으로 증가하지만 한국경제의 잠재 GDP인 1천46조2천억원에 비해서는 24조4천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구소는 환란이 일어났던 1998년에 한국경제는 -6.9%의 성장으로 48조2천억원의 GDP갭이 발생했으나 이 차이를 메우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 성장추세로 복귀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이호승 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한국경제가 금융위기로 넘어진 상황에서 장기추세선을 따라잡으려면 위기 이전보다 빨리 달려야 한다"면서 "따라서 영위히 장기추세선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설 귀향 차량 410대 무상 대여

현대·기아차는 오는 2월 설 연휴를 맞아 각종 차량을 무상 대여해주는 '설 귀향 무료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오는 18일 출시하는 쏘나타 2.4를 비롯해 더 럭셔리 그랜저, 투싼ix, 이반떼 LPi 하이브리드 등 총 300대를, 기아차는 K7,

쏘울 등 무료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2월12일부터 17일까지 5박6일이다. 현대·기아차는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시승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만 26세 이상, 기아차는 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현대차의 경우 다음달 5일, 기아차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 featuring a family and various hearing aid models. Text includes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and '1. 매우 잘 들립니다. 2. 안보입니다. 3. 가격이 마음에 듭니다.' with website www.kbr.com.